고통을 마주하는 지혜

현불논단



성제 박준석 정사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사르코'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지로 평화롭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조력자살 기계다. 이 장치를 개발한 사업체인 '더 라스트 리조트(The Last Resort)'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마지막 선택지라는 뜻인데, 이는 불치병이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뉘앙스를 준다.

삶의 어려움이 마치 게임에서 너무 어려운 난이도를 만났을 때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리셋 버튼이 없으며, 게임처럼 쉽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삶과 죽음을 단순한 시작과 끝으로 보지 않고 윤회의 과정으로 바라본다. 고통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함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찾고 성찰을 통해 깨달음을 얻도록 가르친다. 따라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불교적 가르침에서 볼 때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또한 불교는 생명을 개인의 소유로 보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한 나머지, 자신의 생명마저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생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주의 한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다. 나무의 잎사귀가 나무 전체의 일부이듯,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개인에게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끝낼 권리가 없다고 가르친다. 생명은 타인과 자연, 그리고 우주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교, 생명의 개인 소유 불인정
죽음이라는 고통도 성장의 과정
고통서 얻는 지혜, 진정한 해답

조력자살의 또 다른 딜레마는, 과연 그것이 고통을 진정으로 없앨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불교적 관점에서 고통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그 고통을 통해 배우지 못하면 다시금 고통이 반복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마치 시험을 포기한다고 해서 그 시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시 그 시험을 봐야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며, 그 안에서 배우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통 속에서 어떻게 깨달음을 찾고 성장하느냐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불교는 고통을 회피하는 대신,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찾는 것이 진정한 해답이라고 가르친다.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로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 고통은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사막에서 마라톤을 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사막의 고통과 어려움은 쉽게 피할 수 없으며, 끝까지 달려야만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다. 이와 같이 불교는 고통 속에서 성찰하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통해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결론적으로 사르코와 같은 조력자살 기계는 현대 사회에서 생명과 죽음, 그리고 고통에 대해 많은 고민을 던진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성찰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삶은 고통과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이며, 그 고통을 통해 얻는 지혜와 깨달음이 진정한 해답이라는 것이다.

부석사 관음상 100일 친견법회 열린다

세간과 출세간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지난해 10월 26일 대법원은 부석사의 관음상 반환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민법상 "시효취득"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조계종을 비롯하여 서산시의회 등은 성명을 발표하고 왜구 약탈로 인한 점유의 개연성을 상당히 인정하고 점유 시효를 인정한 것은 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그로부터 1년 여가 경과 했다.

그러나 여전히 관세음보살은 일본으로 '환부'되지 않고 대전시 소재 국립문화유산연구소 수장고에 있다. 2012년 이래 12년째이다. 그 사이 '환부' 이전과 이후를 위한 몇 가지 모색과 접근이 있었다.

첫째는 관음상은 '대마도의 불상'이 아니라 '부석사의 관음상'이라는 점을 재판과정에 확정했다는 점이다. 1330년 2월 32명의 서주의 민초들의 염원으로 조성한 관음상은 원시 소유자로서 부석사는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정했다. 이는 1973년 나카사키현의 문화재로 지정할 때도 '고려국 서주 부석사'를 명시했고 그런 이유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했기에 지정했다는 점에서 불변이다.

일부 언론은 여전히 '대마도의 불상'이라 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을 비틀고 있다는 점에서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

올 초 부석사, 친견법회 요청에
日관음사 전 주지 조건부 승낙
650년만에 본 자리서 법회 열려

둘째는 대마도 반입의 경로가 왜구 약탈로 기인했다는 점을 1심 재판부터 대법원까지 인정했다. 이로 인해 환부 후 무인사찰이 아닌 대마도 박물관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국제박물관협회(ICOM)의 윤리강령에 있는 합법적 소유권 입증 책임과 출처지와의 교류협력은 물론 반환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셋째는 부석사의 동일성, 연속성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서일본 지역에 비정상적으로 고려의 불상, 불화, 범종이 집중되어있는 배경이 왜구 약탈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진실 규명은 한일역사학계의 과제가 될 것이다. 사실 일본 정부가 지정한 국보·중요미술품 113건 중에 고려의 유산이 75건에 이른다는 사실로 보아도 고려와 왜구와의 상관성을 밝혀야 한다.

2015년 부석사는 "단 하루라도 빨리 부석사에 봉안할 수 있도록" 정부에 청원했다. 국회의원, 문화예술계 인사, 종교계, 동포사회, 지역 사회 등 약 3만 5000명이 동참한 청원서명부는 한국정부, 국회 등에 전달되었다. 올해 부석사는 대통령실에 부석사 봉안 후 100일 친견 법회를 요청했고, 관음사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다. 최근 일본과 한국 언론이 친견 법회 가능성을 보도했고. 9월 26일 관음사 전 주지가 조건부 승낙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법회가 성사되면 2015년 신라여래불상이 '장물 환부'라는 초라한 이운이 아닌 여법한 봉안 법회가 650여 년 만에 본래 자리에서 열릴 수 있다. 법회 기간, '환부' 후에 대해 무성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社 說

'하루 5분 선명상' 생활화 운동 펼치자

9월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일순 '고요'가 찾아왔다. 5분간. 그 짧은 순간 광화문 광장의 3만 5000여 대중은 선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관조하고 그 진폭을 차분히 가라앉혔다. 불교도대법회 국제선명상대회 하이라이트 순간이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 시대에 향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간화선을 비롯한 여러 선명상 연구·프로그램 개발 △지도자 양성·시스템 구축 △선명상 센터 설립·전국 100여개 선원 및 사찰 템플스테이서 선명상 활성화 △세계 확산 위한 선명상 문화적 흐름 창조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스님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인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실천인 '하루 5분 선명상'을 제안했다. '하루 5분 선명상'의 실행을 위해 △선명상 길라잡이 △선명상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체계적인 실천법을 제공할 것도 약속했다.

불교와 명상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실제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에 따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어로 재해석한 〈초역 부처의 말〉이 9주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 20위권에 올랐다. 지난 7월에는 2030 세대 내 판매량이 전월 대비 20.9% 상승했다고 한다.

'하루 5분 선명상'은 국민 행복을 위한 출발점이다. 종교에도 나이에도 성별에도 걸림이 없는 운동이 될 수 있다. 진우 스님의 제안대로 하루 5분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자.

불교문화유산 전담 정부 부서 필요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는 특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불교중앙박물관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공동주최한 '불교문화유산 보존·전승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그것이다. 이날 세미나는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사업 시행 10주년을 맞아 다량소장처의 변화와 성과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기조발제를 통해 국가유산청에 불교문화유산 전담 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불교유산은 그 질과 양에 있어 한국 문화를 대표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가유산청 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아직도 없다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한 스님은 "현재 지정문화유산 중 불교문화유산은 35%에 이른다. 중요도가 높은 국보와 보물의 경우는 55% 이상이 불교문화유산"임을 재차 강조했다.

기실 국가유산 보유 사찰의 지원은 원형 보존에 한정돼 있어, 활용과 전승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렇기에 "국가유산의 고귀한 유산적 가치가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향유돼 국민 삶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정책이 변화 돼야 한다"는 주경 스님의 주장은 타당하다. 나아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불교유산 보존·전승을 위해 국가유산청에 불교문화유산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10월 9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10월 9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10월 9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